

“예술가와 큐레이터는 매개체… 변화를 함께 다룬다”

작품 사전공개 현장서 만난 호 추 니엔 예술감독

제주 화산암·초코파이 관련 작품 상세 설명 속도의 차이…바라보는 방식 등 변화 추동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작품 사전 공개가 18일 오후 2시 광주특별시 용봉동 소재 광주비엔날레 주전시동 4전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호 추 니엔 감독은 작품 2점에 대한 내용 설명에 나섰다. 이날 호 추니엔 감독은 이번 작품 두 점의 설명을 통해 변화를 전제로 시간의 지층과 연관지어 설명을 펼쳤다.

▶관련기사 20면

호 추 니엔 감독은 먼저 ‘제주 화산암’(총 27점으로 구성) 작품과 관련해 전시주제가 내세운 변화와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 다른 속

도로 일어난 변화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산이라고 하는 지질의 현상만을 조망했다. 제주도는 섬 자체가 아주 긴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운데 수많은 분출과 용암의 흘러내림, 냉각과 응고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 화산에는 서로 다른 속도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일 화산암에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밧줄 구조라는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면서 이는 서로 다른 속도가 하나의 물질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바위에서 서로 다른 변화의 속도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점을 흥미롭게 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떤 부분은 더 빨리 식고, 또 다른 부분은 계속 흐른다. 액체와 고체가 한동안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속도의 차이가 하나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바위는 단순한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바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속으로 들어온 음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화산 폭발이나 단절, 위기 같은 것이 극적인 변화이다. 변화는 아주 느리게, 서로 다른 속도로 우리의 감지 범위 아래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작가 사사키 켄(Sasaki Ken)의 유휴 ‘초코파이’(Choco Pie)에

는 오래 신은 신발이나 욕실 매트, 청소용 걸레 같은 일상적인 사물부터 풍경이나 문서, 그리고 형이 그린 그림까지 대상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을 연결하는 것은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로 인식한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초코파이라는 자체에 함유된 변화의 역사에 주목했다. 그는 하나의 정확한 기원을 찾아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과거가 보여주는 서로 가까워지며,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초코파이는 빠른 산업 생산과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초코파이는 엄청난 수량으로 생산되고 가볍게 구입하며 빠르게 먹고 사라지는 반면, 유휴는 전혀 다른 속도로 작동한다는 입장이다. 사사키 켄 작가는 금방 사라지도록 만

들어진 것이 천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호 추 니엔 감독은 초코파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 평범해 잘 보이지 않지만 그안에도 장소와 장소 사이의 관계, 이동과 변화의 역사가 내포돼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 그 사물은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표한다.

호 추 니엔 감독은 이번 사전 공개에서 중요한 단어로 변화를 꼽은 뒤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실천은 서로 다른 변화의 속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찌면 예술가와 큐레이터는 통로, 혹은 전달자, 매개체에 더 가까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함께 다룬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정경남 본부장 취임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4년간 함께 만든 변화, 품격 있는 노후로 잇는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정경남 본부장 취임 4주년 성과공유회 향후 발전 방향 등 모색…노인일자리 확대 등 추진 호평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이 정경남 본부장 취임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효령타운은 최근 타운 공영장에서 회원 어르신과 지역사회 관계자,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남 본부장 취임 4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 효령타운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성과영상 상영,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성과보고,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령타운은 정 본부장 취임 이후 ‘품격 있는 노후, 따뜻한 동행’을 기조로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년사회화교육 활성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 연계,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했다. 2022년 9개 사업단 320명이었던 사업 규모를 올해 13개 사업단 445명까지 늘려 12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복

지 실현에도 힘을 쏟았다.

정 본부장은 이러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국회의장 공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말뚝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행사도 마련됐다. 함께가는 효령타운 박철수 회원의 연사로 신한국금융그룹이 후원한 5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준비됐으며, 아이스크림도 함께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정경남 본부장은 “지난 4년간의 성과는 직원과 어르신, 지역사회와 후원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광주FC 발전 공로 감사패

월드컵경기장 안정적 운영 ACLE 홈경기 지원 등 기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FC 발전과 지역 축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전갑수 회장이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전 회장이 광주FC의 동반자로서 지역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됐다. 특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홈경기 개최를 지원하는 등 광주FC가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광주시체육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진흥과, 광주FC와 함께 ‘잔디관리 TF’를 운영하며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그라운드 품질 향상에도 힘써왔다. 잔디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혹서기와 장마철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했다. 계절별 잔디 생육 관리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오른쪽)이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병해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기 전후에는 그라운드 상태를 상시 점검해 잔디 훼손 여부와 시설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시 보완하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광주FC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다”며 “특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ACLE 홈경기 개최 지원 등 광주

FC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돼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최고의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FC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선수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고객만족도 도시개발공사 전국 1위

창립 이후 최고 91.82점 전체 평균보다 5.67점 높아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창립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18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82점을 획득해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389개 지방공기업의 시공·용역업체와 분양고객, 시설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다.

전남개발공사가 받은 91.82점은 전국 도시개발공사 평균인 86.15점보다 5.67점 높은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한 가운데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전남개발공사는 18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82점을 획득해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고객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제인증을 비롯해 시민참여 CS추진단 운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섰다.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지원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실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고객만족도 1위와 4년 연속 최고등급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해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rnews1@

켄텍, 반도체 맹독성 폐수 100% 분해 광촉매 개발

서동한 교수 연구팀 등 성과 저순도 규조토 업사이클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진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폐수를 태양광으로 분해할 수 있는 고효율 광촉매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켄텍은 서동한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김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맹독성 화학물질인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나노 복합 광촉매 ‘DE 700’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TMAH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현상액 등으로 사용되는 필수 화학물질이다. 수생태계와 인체에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폐수 배출 전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고농도의 2차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문제로 산업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제대로 활



서동한 켄텍 교수, 김영진 교수, 아부-엘라와르 박사, 김선우 박사

용되지 못했던 저순도 규조토에 주목했다. 60도 미만의 수증 대기압 플라즈마 공정을 적용해 규조토 내부의 미세한 구멍에 산소 결합을 포함한 이산화티타늄 나노층을 균일하게 합성하고 고정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합성 방식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발한 DE 700은 가시광선을 포함한 넓은 태양광 영역에서 높은 빛 흡수 성능을 보였다. 실험 결과 20ppm 농도의 TMAH 폐수에 DE 700을 넣고 상용 태양광 램프를 12시간 비추자 오염물질이 100% 분해됐다. 이 가운데 약 62%는 독성이 없는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됐다.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용 광촉매 ‘TiO2-P25’는 같은 조건에서 29.22%의

분해율과 14.11%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DE 700의 분해율은 상용 촉매보다 3배 이상, 전환율은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구성과 재사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DE 700은 네 차례 반복한 재사용 실험에서도 91~97%의 높은 정화 효율을 유지했다. 정화된 물을 활용한 식물 재배 시험에서도 생태계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촉매를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유해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에서 단시간에 합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번 연구에는 켄텍 서동한 교수와 고려대 김영진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켄텍 알리 M. 아부-엘라와르 박사와 김선우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